



[교역동향] 美 낙농업계, 정부에 항만 물류대란 대책 마련 촉구

- 선적 지연과 운임 상승 등의 이유로 미국산 유제품 수입 거부 업체 증가



미국 주요 항만에 몰려든 수입 컨테이너로 물류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낙농가연합(NMPF)과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는 77개 농산물 및 식음료 협회와 공동으로 항만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정부에 전달했다.

금년 초 항만 정체는 물론 빈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육상물류 공급망이 과부하되고 해상운송비가 급상승하면서 미국의 유제품 수출업체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수출액의 12%에 달하는 약 3억 달러(약 3,512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계속되는 배송 지연으로 주요 수입업체와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업계는 수입 수요는 증가한 가운데 선적 지연과 운임 상승 등의 이유로 미국산 유제품과 농산물 수입을 거부하는 해운업체가 늘어나는 등 항만 물류대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원활한 물류배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9월 16일자 >

[마케팅] 캐나다, 차세대 낙농가들의 이야기 담은 캠페인 실시

-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젊은 낙농가들의 이야기 공유



캐나다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차세대 낙농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최근 캐나다낙농가협회(DFO)는 '내일의 낙농가(Dairy Farmers of Tomorrow)' 캠페인을 통해 엄격한 기준 하에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차세대 낙농가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낙농가들의 혁신적인 기술 활용 사례 등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젊은 요리사들을 통해 100% 캐나다산 우유 및 유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공유하며 낙농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DFO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캐나다판 K-MILK 사업인 'Blue Cow' 로고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및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강화는 물론 동물복지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dairyfarmersofcanada.ca, 9월 1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